

흔들리는

石油帝國의 内幕(下)

IV. 멕시코의 페멕스

석 유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잇달은 巨大油田의 발견으로 세계 第4位の 産油國으로 浮上한 멕시코는 지난 해 8月 약 8백억달러의 外債務상환을 제때에 못해 국제금융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후 9월에는 國內민간은행의 국유화라고 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12월 1일에 마드리드 新政權이 발족했다.

新任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례적으로 前政權을 비판하는 한편, 緊急經濟再建計劃을 발표했으며, 그 후 前政權의 정책노선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石油 畧의 전인차 역할을 해온 페멕스에 대한 정책이다. 멕시코에서는 해마다 3월 18일은 石油國有化 기념일로서 독립기념일, 혁명기념일과 함께 중요한 국경일인데 올해 축하식전에서 마드리드 大統領은 페멕스의 不正, 汚職, 무계획성을 격렬하게 비판, 그 체질개선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주목을 끌었다.

마드리드 新政權은 史上空前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前政權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부예산에서 이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즉 마드리드 新政權은 금년도 예산의 중점시책으로 ① 에너지·工業·행정부문 지출의 억제, ② 행정기구의 축소 및 개편, ③ 公共部門 지원의 선별강화 및 지출의 억제, ④ 농목축업·운수·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 확대, 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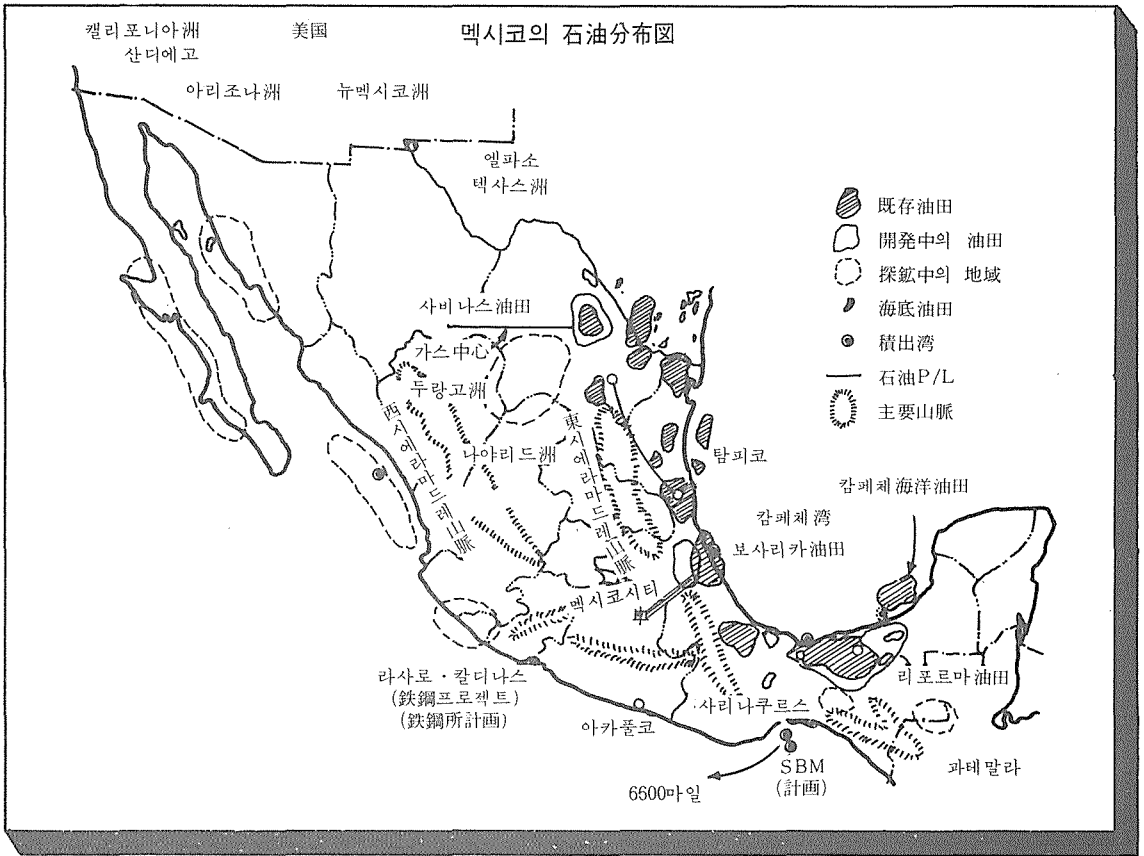
사회보장·보건·위생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부문으로부터 목축업으로의 정책전환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8~81년 기간중 멕시코經濟는 空前의 붐을 이루어 4년 동안에 GDP는 연평균 8.4%, 투자는 15%의 성장을 기록했고, 또 4백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다. 로케즈政權의 국가공업개발계획, 종합개발계획이 착실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이 보이자 카터 美國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대통령, 大平 日本수상 등 각국수뇌가 멕시코를 방문, 石油를 담보로 大型경제협력을 약속했고, 각국민간은행은 石油를 담보로 거액의 차관을 제공했고, 민간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天井不知의 인플레이

그러나 이와 같은 붐의 뒤그늘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인플레이는 78년 15.7%, 79년 18.3%, 80년 24.4%, 81년 24.5%, 82년 98.8%에 달했고, 財政赤字는 79년의 7.3%에서 81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 또 심각한 것은 石油수출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工業品수출이 감소되고, 농업의 부진이 계속되어 해마다 美國으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石油에 의한 經濟교란」은 82년의 멕시코경제에 壊滅의인 타격을 가져왔다.

멕시코中央銀行의 82年 年次報告에 따르면, 주요



경제지표는 GDP성장율이 0.2% 감소, 광공업생산 1.6% 감소, 제조업 4.1% 감소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는 1.5% 증가, 투자 16.8% 감소, 고용 0.8% 감소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각각 98.8%, 92.6%가 상승하여 史上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2백10억6천만달러, 수입 1백44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흑자는 39년만의 처음인데 이는 페소화의 평가절하 수입규제, 외환보유액의 부족에 따른 수입감소 때문이었다) 금융을 제외한 서비스收支는 8억9천만달러의 흑자, 금융서비스收支는 1백1억3천만달러의 적자, 경상수지는 27억달러의 적자, 자본수지는 공공부문의 借入등에 의해 61억8천만달러의 흑자, 외환보유액은 18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經濟混迷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新政權은 젊은 테크노크라트와 知美派 경제전문가들을 요소에 배치하여 歐美선진제국과 IMF등의 국제금융

기관의 평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對外債務

그러나 올해 들어 또 다시 50억달러의 對外債務가 추가됨으로써 약 850억달러에 달하는 對外債務 부담은 심각할데 석유가격이 계속 軟調를 지속하고 있는데다가 美國의 金利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 상환해야 할 金리지불액이 1백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태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換率조정으로 관광收入이 크게 늘어나고, 美國에서의 不動産구입과 달러예금등의 형태로 해외에 도피했던 자금이 新政權에 대한 신뢰회복에 따라 환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IMF나 외국인간은 행으로부터의 對外債務의 대부분이 투입된 산업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통해 다시 경기가 회복될 경우, 생산력이 종래보다 급속히 늘어날 가능

성이 있고, 美國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가 회복될 경우, 原油가격의 상승, 原油수출량의 증가, 1次 産品가격의 상승등의 여러가지 효과가 겹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촉진과 수입품의 국산화등이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관련정책으로서 原油의 尙美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과 OPEC에 접근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얻어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페멕스산의 사업내용을 82년도 사업보고에서 보기로 하자.

① 탐사활동=70개의 探査井을 굴착하여 18개井 성공

② 原油매장량=확인매장량은 7백20억배럴로 前年과 변함이 없다. 82년의 생산량을 13억 7천 2백만배럴로 계산할 경우, 可採年數는 52년이 된다. 추정매장량은 9백 2억 7천 1백만배럴, 잠재매장량은 2천 5백억배럴.

③ 開發油井= 2백88개의 開發油井이 굴착되어 2백20개井이 성공, 17개는 注水用으로 성공율은 81%.

産油量의 增加

④ 原油生産=하루 2백74만배럴로 전년대비 18.8% 증가. 캄페체灣및 와이만교지역의 증산이 현저하다.

⑤ 가스生産=하루 42억 4천 6백만 입방피트로 전년대비 4.6% 증가.

⑥ 精製量=하루 1백19만 9천 1백배럴의 原油·컨덴세이트를 정제, 전년대비 5.7% 감소.

⑦ 天然가스処理=하루 33억 9천 4백만배럴 처리, 전년대비 4.7% 증가.

⑧ 基礎石油化學生産= 1천58만 9천 9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 82년중에 14개 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가 현재 가동중인 석유화학플랜트는 92개, 가스처리플랜트는 30개.

⑨ 輸出=原油수출은 하루 1백49만배럴로 전년대비 35.9% 증가. 금액으로는 연간 1백56억 2천 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

⑩ 国内販売=총매출액은 1천 8백21억4천 6백만페소로 전년대비 60.6% 증가.

⑪ 저장능력=신설 저장·배급플랜트의 가동개시

로 저장능력은 3백30만배럴이 늘어나 총 1천 9백 90만배럴로 증가.

⑫ 委託精製=휘발유와 輕油부족을 메꾸기 위해 美國과 카리브海에서 하루 15만배럴, 스페인에서 하루 7천 7백배럴을 위탁받아 精製.

⑬ 收入=총수입은 1조 6천 14억페소로 그 내역을 보면, 自己資金收入 62%, 차입금 38%로 되어 있다. 自己資金收入中 1천 4백84억페소는 국내매출, 8천 1백23억페소는 原油등의 수출, 2백74억페소는 기타수입.

⑭ 支出=총지출은 1조 5천 7백25억페소로 그 내역을 보면, 聯邦稅지불 21%, 투자 18%, 채무상환 36%, 영업경비 13%, 이자지불 9%, 기타 3%이다. 聯邦납세액은 3천 2백68억페소로 전년대비 37% 증가, 투자지출은 2천 8백48억페소, 채무상환은 5천 6백47억페소, 이자지불은 1천 5백 7억페소.

⑮ 債務= 1백45억 1백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했으나 이중 1백28억 1백만달러를 상환했기 때문에 순도입액은 16억 9천 8백만달러. 대외채무도입액은 3천 6백12억페소로 은행별로는 시티뱅크 9백67억 5천만페소, 소시에테·피난세르銀行 28억 2천만페소, 銀行·오브·아메리카 25억 6천페소, 스위스뱅크 34억 7천 4백만페소, 코메르츠뱅크 24억 3천만페소, 大和証券 24억 3천만페소로 모두 장기채무이다. 이밖에 단기대외채무 1천 7백46억 9천 1백만페소, 바이어즈 크레디트 52억 9천 7백만페소, 서프라이어즈 크레디트 2천10억 7천만페소가 도입되었다. 국내채무도입은 中央銀行 3백96억 5천 5백만페소, 금융公社 73억 7천만페소, 멕시코商業銀行 82억 4천 5백만페소, 바나맥스 1백17억 3천만페소이다.

매출액의 85%는 輸出

⑯ 売出額=총매출액은 1조 7천 9백억페소로 수출은 85%, 국내매출은 15%이다.

⑰ 稅前이익은 총 6천 7백30억페소로 전년대비 4천 2백80억페소가 증가했고, 연방정부에 6천 7백 20억페소를 지불했다.

이와 같이 페멕스산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대급의 국영석유회사로서 정부재정收入의 30%, 국내

멕시코 石油 關聯 統計

	確認埋藏量 (億B)	原油生産 (千B/D)	原油輸出量 (千B/D)	原油輸出額 (百万달러)	平均價格 (\$/B)	設備投資* (億페소)	聯邦納付金* (億페소)
1970	55	487	-	-	1.59	51	16
1973	54	527	-	-	11.56	72	20
1975	63	806	94.0	-	11.90	140	86
1977	160	1,086	202.0	987.3	13.39	349	189
1979	458	1,618	532.8	3,811.3	24.60	835	470
1980	601	1,936	827.8	9,449.3	34.40	1,218	1,624
1981	720	2,312	1,098.0	13,305.2	33.20	2,308	2,382
1982	720	2,746	1,492.0	-	-	-	-

(資料) 페멕스 『事業報告』 各年에서 作成. *페멕스

총생산의 7%를 차지하고 있다.

페멕스社가 설립된 것은 1938년이지만, 급속히 확대, 발전된 것은 최근 10년간의 일로서 이 시기에 企業資産은 5배 증가, 純매출액은 6배 증가, 原油생산량은 6배 증가, 精製량은 1배 증가, 석유화학생산량은 4배 증가, 原油수출량은 6배 증가, 확인매장량은 13배나 증가했다. 특히 76년말에 등장한 로페스·포르치오政權은 석유생산의 확대와 原油輸出收入의 대폭증대를 경제정책의 重点시책으로 삼아 해마다 거액의 대외채무를 끌어 들여 석유산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페멕스社内部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国有化기념식전에서 라몬·베테타총재 자신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페멕스의 問題點

첫째, 생산면의 문제로 최근의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설비의 확사가 계속되어 보수의 지연, 제품품질의 저하, 저장능력의 부족등이 현저하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불가피하다. ① 重質油 정제능력의 확대, ② 海洋가스생산시설의 정비, ③ 환경보전대책의 강화, ④ 人力증원의 억제 ⑤ 기술혁신의 추진.

둘째, 유통면의 문제로 저장시설, 파이프라인網, 유통구조의 개선, 약천후에 취약한 原油積出港의 시설개선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경영면의 문제로 관료주의적 비능률의 만연, 제품가격억제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등이 지

적되었다.

넷째, 당면한 투자의 重点항목으로 ① 라칸그레헤라石油化学사업의 早期완료, ② 정제능력의 확대, ③ 精製가스의 유효이용 추진, ④ 2次 회수의 강화, ⑤ 기준탄사베이스의 유지, ⑥ 휘발유, 輕油의 품질향상등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당면의 활동방침으로서 하루에 原油 275만 배럴, 天然가스 43억 입방피트의 생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섯째,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량을 하루에 原油 1백50만 배럴, 天然가스 3억 입방피트로 하되 시장의 實勢를 반영하기로 했다.

일곱째, 환경문제로 지금까지는 생산목표달성을 위해 석유産出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파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환경보전에 대해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여덟째, 여론의 비판을 받은 페멕스내부의 기강쇄신과 체질개선이다.

「멕시코革命의 榮光의 상징」, 「資源내셔널리즘의 바이블」로 격찬을 받았던 페멕스는 이제 「땅에 떨어진 不死鳥」가 되고 말았지만, 巨大한 석유자원을 안고 있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상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캐나다의 石油

바야흐로 캐나다와 美國 사이에 에너지戰爭이 불붙고 있다. 美國, 北海, 멕시코에 이어 産油國으로 浮上한 캐나다(日産 1백25만 배럴)는 「캐나다의 石

油는 캐나다인의 손으로」라는 石油내셔널리즘에 고무되어 民族系 石油資本의 靑睨으로 獨石油帝國이 興隆했다.

캐나다의 石油를 지배해온 美國石油資本에 對抗하기 위해 등장한 獨石油는 原油가격하락과 高金利의 逆風속에서 처음부터 그렇듯 강력한 國策석유자본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年間매출액의 3배에 가까운 63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金融難에 빠진 獨石油는 美加석유전쟁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하 단위는 캐나다 달러기준)

「캐나다 北極部에 中東규모의 油田이 잠자고 있다」는 今世紀 최대의 꿈에 운명을 걸어온 존·P·겔러거야말로 獨石油帝國을 1950년 美國투자은행인 로브로즈의 出資로 창립시킨 立志傳의인 인물이다. 겔러거는 第1, 2次 석유위기때 오타와 정부와 内外의 금융계를 끌어 들어 美國系 석유회사의 캐나다 資產買収로 獨을 캐나다 최대의 石油帝國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帝國完成의 날은 國策금융제도 말려든 재정위기가 시작되는 시초가 되었고, 결국 겔러거는 退陣하고 말았다.

그러나 드라머의 第1幕「獨의 興隆」, 第2幕「獨의 危機」에 이어 「獨의 再生」이라는 시나리오를 캐나다정부와 토론토·몬트리올금융계가 그리고 있다.

政府의 적극적인 지원

「自國의 석유자본은 自國資本으로 굴착한다」는 캐나다정부의 기본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6년부터인데 캐나다는 이때부터 日本을 앞으로 최대의 石油·가스수출대상국으로 想定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76년에는 獨石油가 北極油田을 발견, 페트로캐나다가 발족되었고, 73년에 설립된 半官半民의 캐나다石油公社의 석유부문·칸테라·에너지의 3대 핵심사업에 골격을 갖추어 트뤼도政權의 에너지자립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第2次 石油危機가 계속되던 지난 80년 10월, 트뤼도政權은 「國家에너지計劃」을 발표하고, 캐나다 石油資本을 강화시키기 위한 具體案을 제시했다.

(1) 79년말 현재 25%에 불과한 石油産業의 캐나다 資本化率을 오는 90년까지 50%로 끌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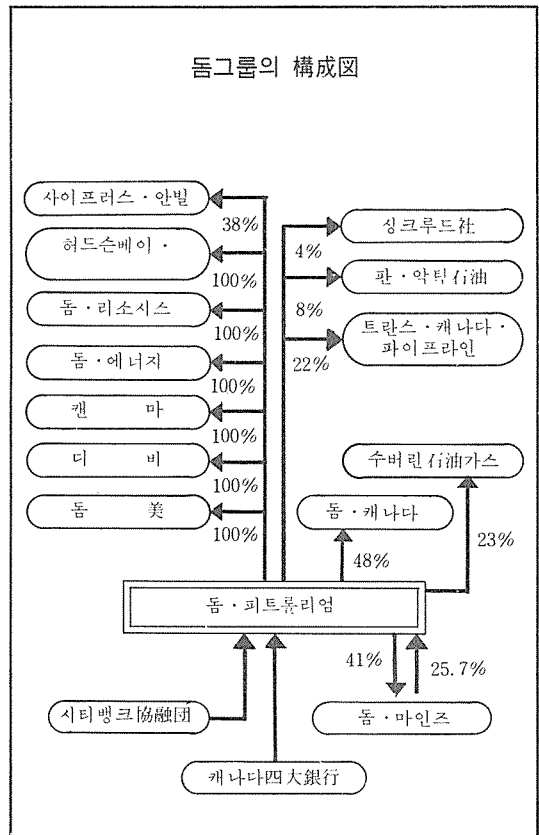
(2) 79년 현재 25개 대규모 석유회사중 17社가 외국석유자본에서 총매출액의 72%를 지배하고 있는

데, 앞으로 외국석유자본을 買収하여 90년까지 過반수가 캐나다企業에서 매출액비중이 50%가 넘도록 한다.

(3) 연방정부가 탐광개발권, 생산명령권을 집중하고 캐나다資本에 대한 개발비등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利權의 축소를 추진한다.

(4) 신규 탐광개발권은 캐나다資本化率 50% 이상의 기업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외국자본이 취득한 區域도 5년 이내에 탐광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드디어 獨石油에도 轉機가 왔다. 石油自立化의 國策전략으로서 캐나다정부는 獨石油에 신규개발지역에서의 개발비 1달러에 대해 최고 80센트의 補助金을 지급하고, 캐나다 大銀行들은 자금을 투입, 官民一體로 獨石油 육성에 나섰다. 겔러거會長으로서는 이 시기가 생애 최고의 날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獨石油는 언제부터 상업생산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極北油田의 개발보다 하루 빨리 民族系 石



油会社로서 美国 메이저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규모로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겔러거會長은 리차드社長의 건의를 받아 들여 北極油田 개발보다 손쉽고 투기적인 확장책을 채택했다. 美国 9位の 석유자본인 코노코社の 캐나다子会社인 허드슨·베이·오일·앤드·가스社를 42억 달러에 買収했다.

買収와 事業擴張

동石油은 「외국석유회사의 캐나다資産買収」에 의한 石油産業의 캐나다資本化率의 향상을 國是로 하는 트뤼도정권의 배경을 업고, 지금까지 買収·합병책에 의한 石油·가스매장량의 증대를 꾀해 왔다.

78년의 지벤스·오일의 買収(3억달러), 79년의 美国 메사石油의 캐나다資産買収(1억5천만달러), 트란스·캐나다·파이프라인의 持株매입확대(2억4천4백만달러), 80년의 카이저·리소시스의 石油·가스매장량의 구입(7억달러)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고 81년 1월부터 리차드社長의 主導로 준비이저인 코노코의 캐나다子会社 허드슨의 買収작전이 시작되었다. 買収대상은 엑슨(임페리얼石油), 모빌·캐나다등 국제석유자본과 아모코, 코노코등 準메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은 自社の 연간매출액의 2배 이상의 買入자금을 투입하여 코노코社の 허드슨 買入에 나섰다. 동은 81년 5월에 우선 母会社 코노코의 주식 2천2백만 株를 美貨 14달러30센트씩에 구입했고, 이어子会社 허드슨의 코노코持株 53%와 교환하고, 또 나머지 47%를 82년 3월에 매입했다.

또 수개월후에는 프론프만제벌(몬트리올)의 주력기업인 시그램이 코노코買入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월街를 뒤흔들었다.

동石油의 라이벌会社인 國營 페트로·캐나다는 81년 2월에 벨기에의 석유자본 페트로피나의子会社인 페트로피나·캐나다를 美貨 12억 달러에 매입했고, 同年 3월에는 캐나다開發公社가 프랑스의 ELF·아키테느의 캐나다子会社를 11억달러에 매입했다. 같은 시기에 허스키石油은 트라먼트石油을 取得했고, 美国 얼라이드社の 캐나다石油·가스資産, 美国 셸의 캐나다子会社인 셸·익스프렐러의 資産일부를

매입했다. (81년 7월, 총매입액 약10억달러)

또 82년말에 페트로캐나다는 BP의 캐나다内の 下流部門(1천6백40개의 주유소와 1백8개의 터미널등)을 구입키로 합의했다. (금액은 6억7천만달러) 이밖에 동과 마찬가지로 터보·리소시스, 서페트로, 런서·오일등도 외국석유회사의 캐나다資産매입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의原油·液化天然가스生産会社랭킹

(日量 1,000배럴, 1982年実績)

(1) ★임페리얼·오일	164
(2) 텍사코·캐나다	145
(3) ★동·피트롤리엄	115
(4) 겔프·캐나다	114
(5) 세브론·캐나다	90
(6) 모빌·캐나다	86
(7) ★케트로·캐나다	83
(8) 아모코·캐나다	72
(9) 셸·캐나다	63
(10) ★관·라커베이디언	60
∴ ∴ ∴	∴
(上位20社合計)	1,230

캐나다의天然가스生産会社랭킹

(100萬立方미터/日) (1982年)

(1) ★동·피트롤리엄	16.47
(2) 셸·캐나다	16.40
(3) ★케트로·캐나다	10.57
(4) 아모코·캐나다	9.92
(5) ★관·커네이디언	9.22
(6) 겔프·캐나다	7.77
(7) 임페리얼·오일	7.30
(8) 모빌·캐나다	6.30
(9) ★앨버터·에너지	5.47
(10) ★힐만·위커	5.38
∴ ∴ ∴	∴
(上位20社合計)	128.95

*표는 캐나다 資本의 会社

石油自立化의 기수

바야흐로 동石油은 캐나다石油自立化운동의 중심세력이 되고 있으며, 동石油 자신은 일련의 합병을 통해 석유매장량에서 임페리얼石油에 이어 2位,天

然가스매장량에서 1위인 캐나다石油企業이 되었다. 캐나다석유업계의 캐나다資本化率은 79년의 25%에서 82년말에는 35%로 늘어났으며, 90년까지의 목표인 50%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허드슨의 합병은 돔石油로 하여금 국제석유자본의 캐나다子會社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石油·가스매장량을 갖고, 現金收入도 증대시켜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겔러저가 이끄는 돔石油는 美國석유자본에게는 위험한 존재이지만, 캐나다로서는 영웅이다. 그런데 캐나다 石油業界의 나폴레옹이 이 허드슨 매입계획이 다소 誤算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합병완료 직후였다.

허드슨 買入을 완료했을 때, 原油·가스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은 악화되었으며, 매장량가치도 감소하여 買入金액을 하회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8억 달러로 평가되었던 허드슨의 인도네시아 매장량은 3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드슨 買入때 돔石油는 캐나다의 4大은행과 시티뱅크 協調融資團으로부터 약 42억달러를 借入했다. 長期借入金은 81년말 현재 62억달러(同年 매출액의 약 3배, 캐나다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은 40억달러)에 달했으며, 82년 9월부터 이행해야 할 상환계획의 실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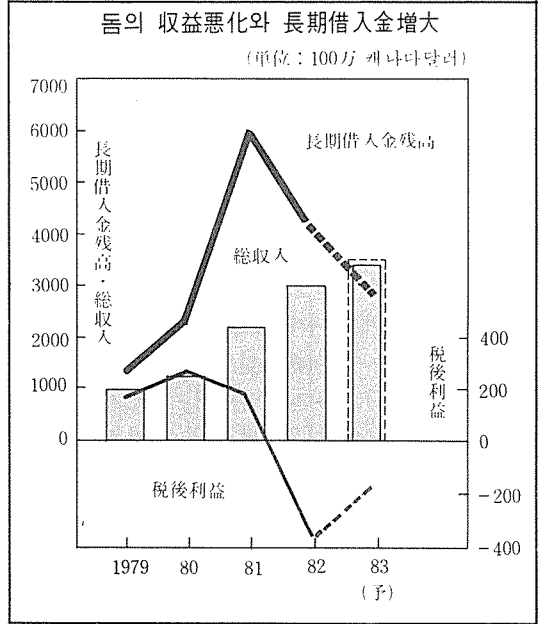
돔石油는 허드슨株式 34.1%와 해외자산을 15억 달러에 매각하여 캐나다銀行에 대한 상환의 일부로 충당했으나, 자금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돔石油를 캐나다 에너지自立計劃의 주축으로 밀어온 트뤼도政權과 24억달러(82년말 현재)를 지원해 준 캐나다의 4大銀行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구제 재건하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움직이고 있다.

82년 9월에는 「돔石油의 재정재건에 관한 原則 협정」이 캐나다정부와 4大은행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골자는 ① 신규 민간자본의 도입과 資産매각, ② 既차입금의 상환연기(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상환으로 전환), ③ 이와 같은 自力재건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캐나다정부와 4大은행에 5억달러 정도의 轉換社債를 발행하여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4大은행은 돔石油에 대한 채무상환연기에 동의하는 한편, 돔石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

다. 지난 4월 돔石油의 帝王이었던 겔러저는 경영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대표권이 없는 회장이 되었다. 이것은 82년의 경영실적에서 3억달러의 赤字를 낸데 대한 引責의 형태를 취한 것이지만, 돔의 경영권이 정부와 은행에 완전히 이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I. 英國의 BNOC

과거 OPEC의 전성기에 英國은 인플레이, 失業, 國庫수지의 악화등 三重苦에 시달리며, 그 타개책으로서 北海油田에 꿈을 걸고 OPEC가 아닌 POEC (Potential Oil Export Country, 잠재적석유수출국)라고 부르며 스스로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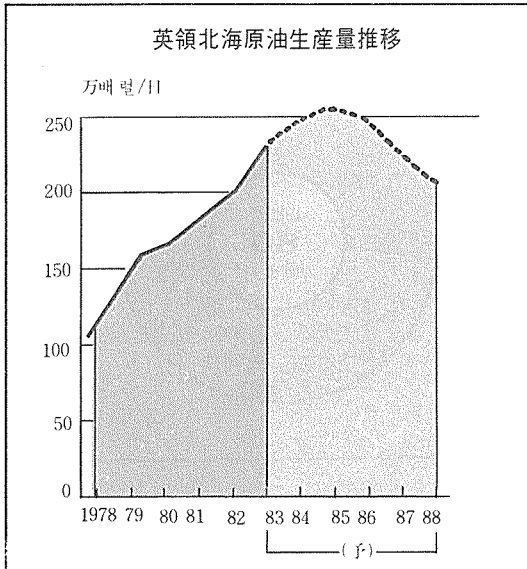
그러나 석유과잉으로 中東, 美國, 소련, 멕시코의 原油가 유럽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英國은 자유세계 第5位の 産油國으로 부상했다. 지난 75년 BP의 포티즈油田으로부터 하루 5만배럴의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현재 英領北海原油의 생산량은 하루 2백20만배럴까지 확대되었다. 大英帝國시대부터 석유소비국이었던 英國은 석유자원확보에 강한 집착을 가져 왔는데 80년 상반기에 석유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함으로써 史上 처음으로 完全自給을 달성, 待望의 석유수출국으로 등장했다.

英國은 64년 英領대륙봉의 석유자원의 국유화선
 언 이래 北海石油收入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国
 庫收入의 증대, 國內석유공급의 확보를 지향해 왔
 다. 75년 윌슨 勞動黨정권은 石油稅法과 石油·海
 底파이프라인法을 제정했으며, 후자를 근거로 하여
 國營인 英國石油公社(BNOC, British National Oil
 Corporation)이 설립되었다. (76년 1월)

이를 계기로 英領北海의 원유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石油收入은 79년에 등장한
 대치 보수당정권의 石油收入稅(PRT)개정과 石油附
 加稅(SPD, 82년말에 폐지)의 도입등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國庫收入의 7%

정부의 石油收入은 지난 76회계년도(76년 4월~
 77년 3월)에 8천 1백만파운드였던 것이 82년도에
 는 78억파운드로 國庫收入 전체의 7%수준에 이르
 고 있다. 또 석유개발·생산의 자본지출은 82년에
 31억파운드에 달해 산업투자 전체의 25%를 차지하
 고 있다.



지난 해 英領北海유전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2백
 4만배럴로 4년전인 78년에 비해 倍增했다. 이 가
 운데 약 58%인 1백18만배럴은 BNOC에 의해 판
 매되었다. (전년대비 14% 증가)

BNOC판매량의 내용은 사업참가에 의한 去來原
 油 74만배럴, 로열티지불로 대신하는 原油 23만배
 려, 第3者로부터의 구입원유 13만배럴, BNOC持
 分原油 8만배럴등이다.

BNOC는 北海油田의 產出原油에 대해서는 勞動
 黨정권때부터 51% 참가협정에 따라 석유회사로부터
 51%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우선구입할 수 있는 권
 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BNOC는 오일 메이저와 같
 은 세계적인 판매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석유
 전문판매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買入價格과 같은 가격으로 석유회사에 一
 定量을 되팔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BNOC의 하
 루 1백18만배럴의 판매량중 37만 9천배럴은 석유
 회사에 되팔았고, 나머지 80만 3천배럴은 에너지相
 의 代理人으로서 BNOC가 판매(장기 계약)했다.

美國에 대량 輸出

석유회사에 되파는 原油는 모두 英國內의 各정유
 公장에 공급된다. 또 BNOC가 취급한 약 80만배럴의
 原油는 國內 이외에 美國, 유럽(西獨이 절반이상)
 에 수출되고 있다. 美國에 대한 수출이 많은 것은
 北海原油가 輕質油이기 때문이다.

BNOC가 설립된 지 6년이 지났다. 初年度の 매
 출액은 2천 8백만파운드, 순익은 2천 2백만파운
 드의 赤字를 기록했다. 그러나 北海油田의 증산과

BNOC 持分の 油田一覽

(※1,000b/d, ※※100萬bbl, %)

油 田	生産開始 年 月	1981年 生産量	確 認 埋藏量	BNOC 持 分	오 너 커레이터
生 産 中					
베 아 트리 스	1981. 9	※ 7	※※ 120	28.00	BNOC
던 린	1978. 8	95	305	9.77	셸
머 치 슨	1980. 9	65	335	33.33	코 노 코
니 니 안	1978. 12	293	1,100	20.73	세 브 론
스타트포르드	1979. 12	26	541	33.33	모 빌
시 슬	1978. 2	115	460	18.94	BNOC
開 発 中					
브 레 이	1983	-	300	20.00	마 라 돈
허 톤	1984	-	250	20.00	코 노 코
開 発 予 定					
크 라 이 드	1978	-	125	51.00	--
노드·브레이	1987	-	175	20.00	-
노드·시슬	1988	-	130	18.00	-

原油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81년의 매출액은 57억 5천 2백만파운드로 확대되었고, 순익은 3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서 80년에는 原油의 先壳代金を 포함하여 무려 1억 1천 7백만파운드로 급증했다.

82년에는 BNOG 单独으로 7개월 결산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은 39억 1천 3백만파운드, 순익은 5천 7백만파운드를 기록했다.

BNOG가 분할된 것은 82년 8월부터이다. 즉 石油의 개발·생산과 같은 上流部門은 子会社 브리토일에 전달시키고, BNOG는 하류부문의 거래회사로 분리했다. 이는 82년 6월에 제정된 石油·가스法에 따른 것으로 대처보수당정권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이다.

본래 BNOG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石油會計(NO A)에의 이월금을 전용하여 이를 英国石炭庁과 버마 오일의 北海의 석유권익과 자본을 인수했다. 당초부터 51% 참가협정에 따라 오퍼레이터, 파트너로서 北海석유개발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정부출자는 없고, 주식자본도 갖고 있지 않다.

特權의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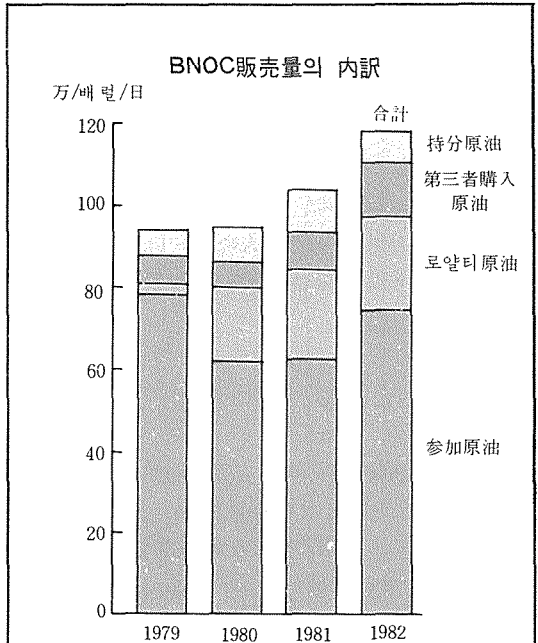
또 79년 이후 보수당정권하에서 갖가지 특권이 배제되었다. 예를 들면, 持分이 없는 유전의 稼動委員會에 출석이 금지되었고, NOA로부터의 借入도 금지되었다. 민간석유회사도 同一한 경쟁조건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일의 特典은 51% 우선매입 정도이다.

그런데 分離子会社인 브리토일은 주식회사로 작년 11월부터 주식의 51%를 민간에 매각했다. 정부는 少株主로 남기 위해서이다. 브리토일은 BNOG의 北海油田의 권익과 자산, 종업원(약 2천 4백명)을 인계받았고, BNOG는 1백25명의 스태프를 가진 거래회사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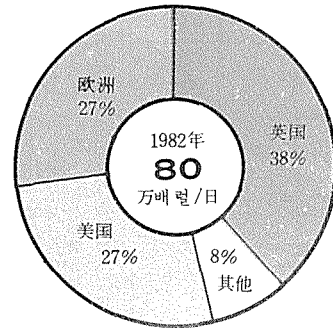
旧BNOG가 操業해오던 베아트리스, 시슬油田 등 北海油田과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인 5개 油田은 브리토일이 인수했다.

새로 BNOG会长으로 선임된 그레함卿은 BNOG 年報中에서 『83년초의 원유거래상황은 악화되어 그동안 BNOG에도 赤字를 냈으나, 지난 3월의 OPEC의 원유가격인하, 北海原油의 배럴당 30달러의 가격결정등으로 시장은 다소 정상을 되찾고 있다. 석

유수요는 금년말까지는 堅強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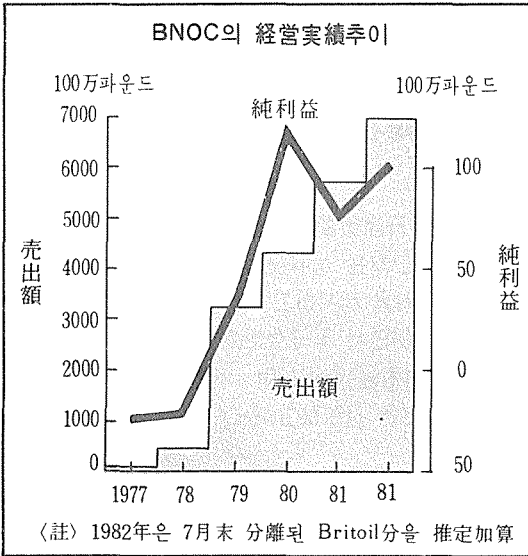


BNOG의 지역별販賣量



확실히 원유가격은 小康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어쨌든 BNOG가 취급하는 원유량은 크다. 올해에는 하루 1백30만배럴의 원유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약 2천 5백만파운드의 매매에 상당한 것이다. 금년 1~3월중 現物市場의 원유가격하락으로 BNOG는 약 5백만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石油会社에 직접 되팔아야 하는 것까지도 걸프등 국제석유자본의 買入거부로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특히 美國系 메이저에서 그런 例가 많은데 특히 BNOC로부터 하루 10만배럴씩 사오던 걸프는 현물시장가격의 하락에 맞추어 BNOC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한 買入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販売力の 취약성

이와 같은 美國系 메이저의 강경한 가격인하압력으로 BNOC는 지난 3월에 굴복함으로써 판매력의

취약성과 가격支持力の 不在를 드러냈다. BP나 셸 등 英國系 기업은 가격안정을 고수하려는 英國정부의 대리인인 BNOC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협력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추종자였던 BNOC가 사우디나 나이지리아에 앞서서 가격인하의 선도役을 해왔다.

北海原油의 해외 최대시장인 美國에서는 北海原油와 輕質油가 인하될 경우, 北海원유가격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또 英國의 先行가격인하는 지금까지 경쟁유종 산출국인 나이지리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엑슨등은 「BNOC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그 해체를 시사하고 있다. 美國系 메이저뿐만 아니라 英國의 여론도 BNOC의 존속에 대해 회의적 내지 부정적이다. 「에코노미스트」誌는 「BNOC는 가격설정이나 코스트算定の 힘이 없다. 약 50개의 공급자와 30개의 고객에 대해 동시에 정직한 仲介者役을 수행함으로써 원유의 매매를 얹은 채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BNOC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확실히 BNOC는 英國을 위한 원유공급을 확보하고, 국고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까지는 원유가격의 상승과 北海油田의 증산등이 겹쳐 그런대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판매력의 취약과 가격支持力이 없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원유가격이 불안정한 최근의 상황에서 그 존재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

□ 産油国短信 □

베네수엘라 · 멕시코 重質油가격 리소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지난 7월 26일 각각 自國産 重質油가격을 배럴당 최하 39센트에서 최고 1.5달러까지 인상했다.

움베르토 · 칼데론 · 베르티 베네수엘라 에너지광업상은 자국산 API 19.0급과 10급 중질유가격을 각각 39센트와 1.5달러씩 인상,

배럴당 25.03달러 및 19.90달러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 케멕스社도 자국산 마야 重質油가격을 현행 배럴당 23달러에서 24달러로 1달러 인상,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